

소크라테스 “목표는 KIA 우승...여권 불태우겠다”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캠프

김여울 기자 미국 투싼 캠프를 가다

“여권을 불태워버리겠다”며 KIA 타이거즈 2년 차 소크라테스가 웃음을 터트렸다.

KIA는 올 시즌 외국인 투수를 모두 교체하면서 새 판을 짜다. 하지만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는 그대로 간다.

소크라테스는 지난해 그라운드에서의 성적은 물론 그라운드 밖에서의 팀워크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일찌감치 KIA와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리고 애리조나 투싼 스프링 캠프에서 익숙한 동료들과 KBO리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지만 엑스트라는 물론 야간 훈련까지 소화하면서 동료들과 뜨거운 2023시즌을 위한 기투를 올렸다.

소크라테스는 “KIA에서 다시 함께 하게 돼 좋다. 1년 있었으니까 동료들과 친하기도 하고, 따뜻한 곳에서 훈련하면서 준비 잘하고 있다. 올해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스프링 캠프를 치르는 소감을 이야기했다.

“동료들과 다시 함께 하게 돼 좋다

응원가 재미있어 ... 팬들에 감사

부상 조심, 좋은 결과 따라올 것”

KIA에서 다시 뛰게 돼 기쁘다는 소크라테스 만큼이나 팬들도 그와 함께 하게 돼 반갑다. 팬들은 지난 시즌에도 “여권을 뺏어라”며 소크라테스의 잔류를 기원했었다.

소크라테스는 “작년 시즌 끝나고 팬들이 가지말라고, 있어달라고 할 때 고맙았다. 늘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응원가 재미있었고, 다른 팀도 따라하는 것 보면서 즐거웠다”며 “여권 불태워버리겠다”라는 농담을 하며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KBO에서 새로운 도전을 한 지난해 소크라테스는 감격스러운 순간과 힘든 시간을 모두 경험했다. 초반 적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를 하던 5월, 소크라테스는 첫 딸을 얻었다.

소크라테스는 “축복 같은 일이었다. 딸이 태어나고 난 뒤 남은 시즌동안 아빠로 어떤 모습 보여줘야 할지 고민하면서 더 좋은 성적낼 수 있었다”며 “아이가 나를 너무 닮아서 아내가 질투할 정도다(웃음).

올해는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쉬는 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5월 한 달 106타수 44안타 타율 0.415로 안타, 타율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28타점(공동 2위), 20득점(3위)을 기록하는 등 거침 없는 타격으로 KBO 5월 MVP가 됐다. 팀은 소크라테스의 활약에 힘입어 18승 8패의 성적표를 작성하면서 5월 신바람 행진을 했다.

아빠가 된 소크라테스는 팀에서는 ‘효자 외국인 선수’가 돼 올스타전 베스트 11의 영예도 안았다. 지난 시즌 KBO 최고 히트작 중 하나였던 그의 응원가가 올스타전 경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소크라테스는 7월 SSG 김광현의 공에 맞아 코뼈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었다. 결국 올스타전 참가도 불발됐다.

소크라테스는 “부상을 입어서 팀에 참여할 수 없고, 집과 병원만 오가는 게 답답했었다”며 “올 시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건강하다면 좋은 성적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재작년부터 성적에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좋다. 올해 더 나은 순간을 그리고 있다. 우승하는 것 그것 하나만 목표 삼아 올 시즌 보내겠다”고 KIA 우승 주역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소크라테스가 미국 애리조나 투싼 키노스포트 콤플렉스에서 기술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WBC 국가대표 투수 양현종 승리의 와인드업

1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싼 키노스포트 콤플렉스에서 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023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훈련. 투수 양현종이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생일 자축 도움 ... 마요르카 4-2 승리 이끌어

‘골든보이’ 이강인(22)이 생일을 자축하는 시즌 4호 도움을 올리며 소속팀 마요르카(스페인)의 패스에 앞장섰다.

이강인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시트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열린 2022-2023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2라운드 비야레알과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 81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그는 후반 11분 3-2로 앞서서 다니 로드리게스의 결승 골을 돕는 등 맹활약했고, 팀은 7분 뒤 터진 베아트 무리키의 골까지 더해 4-2로 비야레알을 제압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이강인은 2선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해 왕성한 활동량과 함께 특유의 정교한 킥력을 선보였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왼 측면에서 날카로운 프리킥 크로스로 올려 안토니오 라이요의 헤딩 슈트를 만들어냈다.

전반 45분에는 왼쪽 코너에서 수비수 2명에 포위됐지만, 개인기로 틈을 만든 후 크로스를 올려 2-1로 앞서나가는 득점에 일조하기도 했다.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은 파블로 마페오가 다시 중앙으로 공을 띄웠고, 이를 로드리게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했다.

후반에도 이강인의 왼발이 빛났다. 후반 11분 오른 측면에서 올린 코너킥이 골대 쪽으로 휘감기며 로드리게스의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강인의 올 시즌 4호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23일 친정팀 발렌시아와 원정 경기에서 골 맛을

본 후 약 1달 만에 기록하는 공격포인트다.

이강인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후반 28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수비수가 없는 비야레알의 후방을 홀로 내달려 골키퍼와 1대1 상황도 만들어냈다. 그러나 슈팅이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가며 아쉬움을 삼켰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29개 패스를 시도해 성공률 86%를 기록했고, 득점 기회로 연결되는 키페스도 두 차례만 들어냈다.

태클은 다섯 번, 가로채기도 한 차례 성공하는 등 중원에서 수비력도 보였다. 이 매체는 이강인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7.7의 평점을 매겼다.

/연합뉴스

광주FC, 수비수 김동국·골키퍼 김태준 영입

광주FC가 수비수 김동국과 골키퍼 김태준 등 두 신예 선수를 영입했다.

광주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측면수비수 김동국과 대학 기대주로 주목받는 골키퍼 김태준을 불러들였다.

강원 흥천FC U-18 출신인 김동국은 2021 고등축구리그 강원 권역 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전국 대회에서 팀의 핵심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러 일행 중 마지막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R리그 10경기에 나서 기량을 선보였다.

김동국은 왼발 킥과 적극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며, 특히 이정호 감독이 중요시 하는 전술 이해도가 뛰어나다. 측면 공격, 측면 수비, 센터백까지도 소화할 수 있다.

정주대 출신인 김태준은 185cm·80kg의 체격조



광주FC에 새로 합류한 수비수 김동국(왼쪽)과 골키퍼 김태준. <광주FC 제공>

건을 갖췄으며 1대1 방어와 위치 선정, 경기 리딩이 뛰어나다. 특히 안정적인 킥력과 빌드업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2019년 27회 백룡기 고교축구대회에서 대구 대륙고의 우승을 이끌며 골키퍼상을 수상했으며, 17·20회 덴스컵 한일 대학축구 경기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월에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파리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돼 테스트를 받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수 디오션CC, 한 홀서 동반자 2인 ‘홀인원’ 진기록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아마추어 골퍼 2명이 같은 홀에서 잇달아 ‘홀인원’ 하는 진기록이 나왔다.

17일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에 따르면 지난 15일 디오션.C.C 웨스트 오션(West Ocean) 코스 3번 홀(Par3 140m)에서 이모(49)씨의 티샷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어 일행 중 마지막으로 티박스에 오른 정모(59)씨의 샷도 홀컵으로 그대로 사라졌다.

두 사람 모두 생애 처음으로 홀인원을 기록했다. 미국 내셔널 홀인원 등록협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1만 2천분의 1로 보고 있다.

동반 경기를 한 2명이 같은 홀에서 홀인원을 기

록할 확률은 1700만분의 1로 추정한다.

디오션CC가 최근 2년간 4개의 파 3홀 가운데 홀인원이 나온 홀을 분석한 결과 이번에 쌍 홀인원이 나온 웨스트 오션 3번 홀에서 31.5%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다른 홀보다는 홀인원이 다소 많이 나왔다는 의미다.

하지만 동반자 쌍 홀인원은 골프장 개장 이래 처음이라고 디오션CC 측은 밝혔다.

이씨는 “생애 첫 홀인원도 기쁘게 동반자도 함께 홀인원을 하게 돼 기쁨이 두 배”라며 “디오션에서 골퍼대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왔는데, 대회 코스에서 홀인원을 해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뉴스